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서울 동 스테이크 부장
고 원용

창 세기를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도록 허락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참조)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문 뒤에서 듣고 있던 사라는 자기의 나이 많음을 생각하여 믿지 아니하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얻었고 사라가 웃었다 하여 아기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계속해서 구약을 읽노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참조) 이스라엘왕 사울이 타락하여 주님의 길에서 멀어지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택하도록 명하시어 베들레헬땅 이새에게로 가서 그 아들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아버지 이새에게 아들을 한 사람씩 볼 수 있도록 청하였고 이새가 보여 준 아들 얼굴을 다 볼 때까지 주님의 허락을 받지 못하였고 이새가 볼 필요도 없다 하여 양을 지키게 했던 막내 아들 다윗을 데려

왔을 때에 비로소 주님의 승락을 받아 기쁨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러한 기사를 읽을 적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이사야 55 : 8)라고 하신 계시의 말씀과 같이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구약에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신 일이나 요셉 스미스에게 일어났던 일 등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는 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한국 땅의 말일성도들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월 18일에 가졌던 서울 동 스테이크 조직을 위한 특별 모임에서 다시 한번 크게 느꼈습니다.

형들이 기름 병을 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있을 때 동생 다윗은 들판에서 양

때를 지키고 있듯 자매와 함께 모임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읍니다. 저에게 주님의 부름이 왔을 때 사라의 웃음과 같은 믿어지지 않음과 스테이크 지지 행사시 일제히 터져 나왔던 여러 성도들의 놀라움의 탄성이 제 입에서도 나왔읍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이신 기쁘지 장로님은 주님의 부름임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셨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귀한 지면을 통하여 일견 개인적인 일인 것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어떻게 인간에게 펼치시는가를 함께 느껴보고자 함인 까닭입니다.

저는 새로이 조직된 시온의 스테이크의 관리 대체사에 임직되었습니다. 개인의 준비, 자격 등을 이야기할 시간은 지났읍니다. 다만 이 직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능과 열쇠를 받았음에 주님의 영이 적절히 도와 주시리라 믿고 감히 이 직분에 합당한 종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몇 가지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속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의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찌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이사야46:3-4)라고 한량없는 사랑과 자비를 보여 주시는 하나님의 품속에 정착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속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뜻대로 생활하며 주님의 원리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이해타산이나 인간적인 생각

이 우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버린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 관념을 분명히 함으로써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버리는 의지와 결단력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둘째 우리의 이웃도 하나님의 품에 거하도록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나라의 말일 성도는 주위로 부터 많은 불신과 오해를 받으며 수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함께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알도록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곳에 지부를 설치하고 와드를 분리하곤 합니다.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과 회원들은 가족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기쁨을 희생한 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가정을 그토록 중요시하는 이 교회에서 가족들과의 함께 하는 시간까지 희생하면서 왜 이토록 선교 사업에 주력하고 교회를 확장하는 데 주력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신이 가족과 좀더 많이 즐거움을 나누고 안정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역사가 30년에 불과할진대 먼 훗날의 안정과 즐거움을 위하여 지금 한 방울의 땀을 더 흘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우리는 목표를 세워 노력하는 생활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과 함께

승영에 거하는 것이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앞에 말씀드린 바를 실천하기 위해서 아주 체계있게 정리된 세부 목표를 수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최후의 목표까지 가는 여정에 군데군데 바라보고 갈 수 있는 목표의 팻말을 세워 놓아 주십시오. 그 팻말은 여러분이 방향을 놓쳐 버리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그 팻말에는 다음과 같은 참으로 구체적인 목표가 씌어져 있어야 합니다. “성찬식에 빠짐없이 참석하자” “십일조를 매달 정확히 내자”...

이제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잘 정리하고 목표를 세워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함에 있어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 일에 임하는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하며 엘마의 음성이 오늘의 우리에게 필요한 권고의 말씀을 들려 주고 있음을 뜨겁게 느낍니다.

“보라 교회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너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났느냐? 하나님의 모습을 네 몸에 지너 보았느냐? 이 놀라운 변화를 너희가 마음으로 느껴 보았느냐?” (엘마서 5:14)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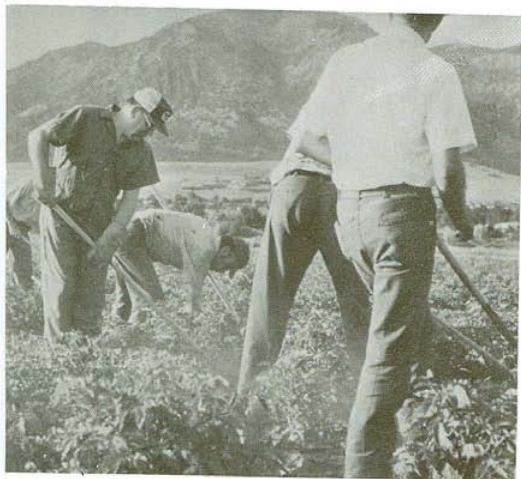
곧도다 그 기초

제9와드 감독단 제1보좌
이영환 형제



1968년의 성탄절은 나에게서는 처음으로 외국에서 보낸 너무나 쓸쓸하고 삭막한 날이었습니다. 이곳에 온지 2주일도 안 되어서 맞이한 것도 원인의 하나이었지만 너무나 조용한 성탄절 분위기가 더욱 고독감을 깊게 해주었습니다. 24일부터 26일까지 백화점, 상점, 극장 등에서는 모든 영업 행위가 중단되고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귀향하였으나 이런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나는 미리 음식을 장만하지 못해 음식점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모든 음식점마저 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사람 그림자 하나 없는 시가지 대로 위를 진논개비를 맞으며 음식점을 찾아 헤메는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참으로 처량한 생각이 들었고 또한 이곳에 온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뜻한 바 있어서 유학이라는 어려운 길을 택하고 한편으로는 희망도 갖고 이곳에 왔지만 막상 이곳 사람들이 성탄절을 가족과 함께 조용히 그리고 뜻깊게 보내는 습관과 전통을 직접 느끼고 체험했을 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라는 가장 평범한 일마저 지키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하여 가족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고 무능력한 패배자로서의 나를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흔들렸고 앞으로 몇 년을 또 이렇게 지내야만 목적을 달성하고 귀국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앞으로의 일이 까마득하고 자신을 잃게 되어 곧 돌아가리라고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에 있던 아내에게 모든 것을 중단하고 귀국할 뜻을 전한 2주일 후에 아내로부터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보내 주신 편지 잘 받아 보았어요. 그곳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고 또 생각이 그렇다면 형편에 맞추어 잘 판단하여서 건디기 어려우면 돌아오세요. 저는 그쪽 사정을 잘 모르지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곳도 인간이 사는 사회이니까 속히 그 사회에 적응하도록 노력하면 나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언어의 장벽이 소외감이나 고독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돌아오시더라도 3개월만 더 계시다가 그래도 건디기 어려우면 돌아오세요. 늘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의 가사를 아래에 적습니다.

<찬송가>

병든나 성하나 어느 때든지
부하나 빈곤에 너 허덕일 때나
집에서나 외국 어느 곳에서나

네 도움 구할 때 네 도움 구할 때
네 도움 구할 때 주 도와 주시리.

건디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찬송가를 부르시며 늘 기도 중에 생활하시길 바라며 주님 은혜 중에 평안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이 가사를 흰 종이에 정서하여 책상 바로 윗벽에 붙여 놓고 아침에 기도할 때나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찬송가를 부르곤 하였습니다. 이 찬송가와 기도를 통해서 나는 다시 용기를 되찾았고 이 찬송가와 기도는 나의 외국 생활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3개월의 36배나 되는 오랜 세월을 무사히 지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언제나 결정적인 시기에 충고와 조언을 해준 아내에게 감사하며 연구 생활이 성공리에 끝난 꿈의 반은 음으로 양으로 뒷바라지 해준 아내가 차지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첫째로 감사한 것은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의 이 찬송가와 기도를 들어 주신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으로 해서 연구 생활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음을 간증드립니다. 기사 내용의 “네 도움 구할 때 주 도와주시리”의 구절을 진실로 믿고 기도하며 행할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축복하여 주시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히 11:1)라는 말씀과 같이 믿을 때에 그 강한 믿음에 의해서 소망이 이루어지며 소망이 현실의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모든 일이 성취될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